

서울광장 이용에 대한 시민 만족도 및 이미지에 관한 연구*

- '시민광장'과 '문화광장'으로서의 인식을 중심으로 -

성 동 규** · 김 성 희***

A Study on User's Image and Satisfaction for the Seoul Square*

- Focusing on the Recognition of Public and Cultural Square -

Dong-Kyoo Sung** · Sung-Hee Kim***

요약 : 시청 앞 광장은 역사적 공간이자, 열린 공간이며 상징공간이다. 따라서 서울광장 조성의 사회·문화적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서울광장은 사람 중심의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서울의 문화이미지를 강화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도시에 활력과 생기를 불어넣고자 조성되었다. 하지만 2004년 5월 개장한 서울광장은 '시민광장'이자 '문화광장'으로서 조성된 애초의 목적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촉진시키고, 공공의 커뮤니케이션을 촉발시키는 열린 장으로서의 기능보다는 단순한 문화·예술의 공연장이 되고 있다. 특히 서울광장에서 진행되는 서울시 주최의 다양한 문화기획 프로그램은 광장 이용객들을 소극적인 '관람객'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이에 광장 이용객 역시 서울광장을 공연장이나 공원의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광장에 대한 보다 성찰적인 운영방안이 모색된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광장 운영현황 및 이용자들의 만족도와 이미지를 중심으로 서울광장의 향후 방안을 점검해 보아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광장 프로그램 및 운영 방안이 시민 참여를 증진시키고, 시민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주제어 : 오픈스페이스, 광장, 문화 공간, 서울광장, 이용자 만족, 공간성, 개방성

ABSTRACT : The Seoul Square is historical, open-systemic and symbolic space. In this point of view, we know that the functions and the meanings of the square in the city are very important. The square in the city includes the space of every day of life as a underlying basis, the space of symbols as an organic solidarity, the space of dynamic as an endless changing, and the space of communication as public agenda. So we can understand the every day of life because the space is formulated self-identity, shared meaning, and experience by others. And we can recognize life as the meaning of culture in terms of historicity, spaciality, and sociality. Consequently, the Seoul Square should be improved into the multi-purpose square which contributes to the civil culture and the civil life, and should be made into a resting place.

Key Words : open space, square, cultural space, seoul square, user satisfaction, spatiality, openness

* 이 논문은 2004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비 지원으로 진행된 “시청 앞 서울광장의 이용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의 성과물입니다.

**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Mass Communications, Chung-Ang University). 논문주 작성자임.

***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강사(Lecturer, Department of Mass Communications, Chung-Ang University).

I. 서론

1985년 유럽연합 각료회의에서 '문화도시'라는 개념이 처음 제기된 이래로, 전 세계 도시는 '문화'와 '도시'의 적극적 결합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 역시 예외는 아니다. 문화예술 공간 및 시설을 확충하거나, 보행자 중심의 거리를 만들거나 혹은 도심 속 자연환경을 조성하는 등 생태적이고 문화적인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여러 방면의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렇다면 문화적인 도시 혹은 문화도시란 과연 무엇일까? 1985년 이래, 매년 1개 도시 이상을 문화도시로 선정해 오고 있는 유럽연합은 도시의 규모와 인구, 역사와 재정, 잠재력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복지체제, 법치주의, 인간정치의 특성을 문화도시 선정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르면, 문화도시란 시민의 일상적 삶과 도시의 공간이 '인간주의적' 정책 하에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가를 말해주는 척도인 셈이다. 또한 문화도시는 도시 공간의 역사성, 일상적인 도시체험을 제공하는 공간에 체화된 장소성, 문화 체험 및 다양한 행위와 이벤트를 창출하는 공공 인프라를 기본 조건으로 삼는다. 따라서 공간-사람-사물의 인간주의적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도시정책, 공공영역과 공동체의 강화, 지역 나름의 역사와 전통 창출, 다양한 문화적 행위와 이벤트 창출이 문화도시를 구성하기 위한 과제라 할 수 있다(라도삼, 2004).

여기서 도시 광장에 주목할 만하다. 도시 광장은 도시인들의 사회·문화적 활동과 커뮤니케이션을 보장하는 공공 공간이다. 동시에 도시 광장은 행동의 장, 맥락, 과거의 경험, 심리

적·정신적 상태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장소로 도시 혹은 공간의 정체성을 제공해준다. 그러나 광장 그 자체가 사람을 모이게 하고 활동을 유발시키는 것은 아니다. 광장을 둘러싼 자연적·인공적 요소들, 물리적·비물리적 요소들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었을 때 도시 광장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장소적 맥락에 맞는 문화 공간으로서의 광장과 함께 주변적 다양한 요소의 적절한 결합이 도시를 문화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울시 시청 앞 서울광장은 문화도시 서울을 만들어나가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었다. 그러나 정치집회 허가 여부를 둘러싼 논쟁에서부터, 편의시설 및 위생관리에 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점 역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시민들의 참여와 커뮤니케이션의 마당인 도시 광장의 의의를 무색케 하고 있으며, 문화광장으로서 기능하고자 하는 서울광장의 발전에 제동을 걸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운영에서 보여준 서울광장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해봄으로써, 서울의 문화공간이자 상징공간인 그리고 역사적 공간인 서울광장의 의미를 평가해보고자 한다. 또한 서울광장의 문제점을 영역별로 도출해봄으로써, 문화광장으로서의 서울광장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자료조사,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서울광장의 조성 과정과 목적, 일반적인 이용현황, 운영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2002년 7월부터 2005년 1월 사이

의 언론 보도 자료를 카인즈(www.kinds.or.kr) 검색을 통해 수집·분석하였다. 그리고 현재 서울광장을 찾고 있는 이용객들의 이용현황 및 이용만족도, 그리고 서울광장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II. 현대 도시환경에 대한 이해

1. 현대 도시생활과 도시 공간의 딜레마

도시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라기보다는, 물리적 공간과 인간의 활동이 어우러지는 ‘장소’이다. 도시는 그것의 물리적 형태와 그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회적 기능 및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요소의 결합에 의하여 어떤 의미를 전달한다. 즉, 도시는 외부적 형태, 사회적 기능, 의미라는 세 가지 요소의 상관성에 의하여 파악된다(김철수, 2001: 19). 여기서 ‘의미’란 도시인들이 도시 환경에 의미를 부여하여 ‘상징화’하는 것을 말한다. 인간은 지각하고 체험하는 모든 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에 따라 행동한다. 따라서 도시인들은 도시 환경을 지각하고 체험함으로써, 도시에 관한 특정한 ‘상징성’을 발견하게 된다. 도시인들의 체험은 물리적 자극에 의한 체험에서부터, 그 자극에 배어있는 느낌과 의미, 나아가 물리적 자극이 인간의 존재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철학적 의미까지 포함한다. 도시에서의 체험은 크게 3가지로 이야기될 수 있다.

첫째, 도시에서의 시간체험이다. 이는 도시의 ‘역사성’과 연관된다. 도시인들은 과거 사람들의 생활 흔적과, 현재 그 공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현상을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느끼면서 살아간다. 일정한 공간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일상은 시간과 더불어 그 의미가 변화하게 되고, 그 변화된 의미가 축적되어 그 지역만의 독특한 ‘역사성’을 창출해낸다.

둘째, 도시에서의 공간체험이다. 이는 역사적 인간의 ‘삶’을 규정하고 정의하는 공간적 지평, 즉 그 공간 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아 정체성을 형성해주는 ‘장소성’과 연관된다. 도시는 다양한 형태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공간은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고유한 기능과 성격을 지니고 있다. 각 공간이 인간의 활동과 관련되어 고유한 기능과 의미를 지닐 때 그 공간을 장소라고 부를 수 있으며, 장소가 지닌 고유한 특성을 ‘장소성(sense of place)’이라 부를 수 있다(김철수, 2001: 21). 이러한 장소성, 즉 인간과 환경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은 사람들의 일상을 구성하는 근간이 된다.

셋째, 도시에서의 의미 체험이다. 도시인들은 도시 내에서 인체의 오감을 통하여 1차 체험을 하게 되며, 이를 통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1차 체험은 사람들의 가치·선호·세계관 등과 같은 고도의 정신적 작용을 통하여 2차 체험으로 연결되는데 이것이 바로 의미체험이다(김철수, 2001: 21). 의미 체험은 또한 ‘사회성’ 혹은 ‘문화적 경험’과 연관된다. 삶의 양식은 시간적 경험과 공간적 경험의 상호작용, 공간을 구성하는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된다. 동시에 공동체 내에서 다양한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 개인과 구조, 구조와 구조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일정한 공간의 사회성을 형성해 간다.

그러나 현대의 도시는 도시인들의 일상적인 경험과 조화로운 도시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인간과 환경, 인간과 인간, 혹은 인간과 구조간의 '단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단절은 공간의 '상품화'에서 기인하며, 자본에 의해 사적으로 소유된 공간의 확대는 의사소통의 장이자 담론의 장인 공공 공간을 사라지게 만들고 있다. 또한 사적 공간의 확대와 공공 공간의 축소 과정은, 공공 공간과 사적 공간의 경계 소멸 현상인 '역공간(liminal space)'을 발생시킨다. 역공간은 공공영역과 상업영역을 동일화시키고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을 혼란시킴으로써, 도시인들의 방향성과 장소적 정체성을 상실하도록 만든다. 도시의 역사성을 상품의 논리로 대체하고, 사물-인간-공간의 상호작용을 방해하며, 도시생활의 불균등, 즉 도시인들의 외적인 생활과 내적인 생활의 부조화를 가져온다.

이처럼 현대 도시공간의 딜레마, 즉 사적 영역의 확대에 따른 공공 공간의 축소는 도시인들의 조화로운 삶을 방해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 공간은 앞서 논의한 도시에서의 인간 체험, 즉 역사성과 장소성 그리고 사회성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 도시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자신들에게 적합한 환경에 공간적으로 머물면서 시간의 흐름과 정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심리적 편안함을 경험하게 된다. 이를 통해 그 환경에 대한 '장소성'을 얻게 되는데, 이는 도시 환경 및 인간 주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도시

인들은 옛것과 새것,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인공과 자연 혹은 시간·공간·스케일·생활 등이 공존하고 조화를 이루는 도시 환경을 요구한다. 그리고 여기서 공공 공간은 이러한 도시 생활의 요소들을 기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장소가 될 수 있다. 특히 현대 도시 속에서 장소성 있는 공간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는 건물과 외부의 공공 공간이 가급적 도로에 의해 단절되지 않고 통합되어지는, 공간과 공간 사이를 연결하여 열린 공간을 창출하는 오픈스페이스(open space)를 만드는 것이다(김철수, 2001: 237).

2. 공공환경으로서 오픈스페이스와 도시 광장의 사회·문화적 의미

본래 도시의 공공환경은 물적 요소와 정보 교환, 이를 목적으로 모여든 사람들과 그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등 다채로운 요소가 만나는 장으로 발전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이 충분히 만족되었을 때, 사람들은 공공환경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매력을 느낀다. 마찬가지로 잘 설계된 오픈스페이스는 인접한 건물을 비롯한 도시 이미지를 높여주고, 나아가 도시의 장소성을 강화시킨다. 건물사이의 상호작용을 강화시키는 오픈스페이스는 도시 환경의 이미지를 구성하고, 상징성과 기능성을 나타내는 요소 중의 하나로서 도시 환경의 주된 매체이다(김영아, 2001: 8).

오픈스페이스란, 기본적으로 개방 시스템(open system)으로서 인간 행동을 한정시키고 결정하기보다는 형태의 지원성(affordance)과

개연성(probability)을 강화시키는 공간이다. 또한 그것은 공공적·준공공적 영역인 시대적 도시 공간의 세부구조를 구성하는 기본요소이다(김영아, 2001: 9). 그러나 오픈스페이스의 개념은 문명의 시작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인간과 환경, 환경과 사회, 사회와 인간의 상호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다. 따라서 오픈스페이스를 일률적으로 정의 내리기는 어렵다. 오픈스페이스에 대한 다양한 개념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오픈스페이스에 대한 다양한 개념 정의

학 자	정 의
Stanley B.Tankel	건물에 의해 점유되지 않은 토지와 수면의 모든 공간
August Hecksher	건축물에 의해 점유되지 않거나 건물군에 의해 감싸여져 있지 않은 공간이라야 하고, 이를 좀 더 사실적으로 건축물의 지붕에 의해 씌워져 있지 않은 공간
Kevin Lynch	오픈스페이스는 반드시 자연적일 필요는 없으며, 특별한 경우에 있어 구조물에 의해 점유. 인간의 형태적 의미로써 오픈스페이스는 그 공간 내에 얼마의 건물이 서 있느냐는 문제보다는 이용자의 자유로운 활동에 어느 정도 개방될 수 있는가의 문제
C.N. Schulz	육체적 행위에 대한 실용적 공간(pragmatic space), 직접적 정위의 자기중심의 지각적 공간(perceptual space), 환경에 관하여 인간에게 안정된 이미지를 형성시키는 실존적 공간(existential space), 물리적 세계에 대한 인식적 공간(cognitive space), 순수한 물리적 관계에 대한 추상적 공간(abstract space)

참고 : 김영아(2001), 김선화(1996)

오픈스페이스의 개념이 다양하게 변화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변함없는 사회·문화적 기능을 수행해왔다. 즉 오픈스페이스는 시민

모두의 공공 공간으로서 시민 커뮤니케이션의 장이자, 도시 활동의 핵이며, 도시 활기의 원천으로 기능해 왔다. 또한 그것은 공공성을 가진 예술 형식으로 그 사회의 가치관과 규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으로 그 자체가 정보이며 에너지 시스템이다(김선화, 1996: 49). 요컨대 오픈스페이스는 인간과 사회, 그리고 통합 환경의 컨텍스트 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한편, 다양한 오픈스페이스의 유형 중에서도 현대도시에서의 오픈스페이스는 주로 공원과 광장, 보행자용 가로가 함께 혼합되어 이루어지거나 연속된 형태로 나타난다. 특히 광장은 오픈스페이스의 중요한 구성인자이자, 인간이 만든 대표적인 도시 공간으로 ‘공공성’이 특히 강조되는 공공 공간이다. 광장은 서양의 여러 나라에서 square, plaza, piazza, place 등으로 통용되고 있다. Webster 사전에서는 광장을 plaza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광장은 도시나 촌락의 공공을 위한 넓은 공간(public square) 또는 개방 공간(open space)으로 시장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즉 광장이란 도시나 집락들의 형상과 그 사회구조와 깊은 관계를 가지는 일정 이상의 넓이를 가진 공간을 말한다(장태현, 1996: 13).

물론 오픈스페이스의 한 유형으로서의 광장 역시 고유의 영속적 요인인 지형, 기후, 국가적 특성, 그리고 정적 혹은 동적 요인인 양식이나 시대상 등의 혼합으로 다양한 외양을 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장은 일정기간에만 유행으로 나타나는 특이한 형태를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기본형태가 존재한다. 광장의 물리적 형태나 외형에 따라, 그리고 광장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의 유형에 따라 각각 5개의 광장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표 2〉 물리적 형태에 따른 광장종류

유형	공간의 특징
폐쇄형	독립공간 지향, 가장 기본형태 원형·정방형 등 정형적·기하학적 형태 로마의 포럼, 파리의 보제(Vosges) 광장 등
축형 (軸型)	공간축을 형성하는 우위적 요소에 의해 형성 중세의 사원, 시청, 분수, 극장, 역 등이 지배 건물 광장으로 통하는 주도로는 주건물을 향해 축 형성 로마의 산 피에트로, 파리의 베르 사이유 광장 등
핵형	광장 중앙에 기념물, 분수, 조각 등 설치 광장주변의 이질적 요소를 일체적으로 구성 베네치아의 성 조바니라오로 광장 등
복합형	규모나 형태가 다른 광장이 하나의 축을 형성 축이 없는 공간구성, 작은 광장이 큰 광장으로 개방 베네치아의 산 마르코 광장(San Marco) 등
무정형	공간이 한정되지 않고 특정형태가 없는 광장 런던의 트라팔가 광장 등

참고 : 박상길(2003).

〈표 3〉 행위 유형에 따른 광장

	특징
보행 광장	차량 통행이 제한, 보행자 중심 만남·휴식·산책 등이 이루어지는 넓은 마당 건축물군에 의하여 둘러싸인 중정(中庭)
교통 광장	차량소통을 위해 도로의 결절점에 형성 도로와 차량을 중심으로 구성, 비인간적 공간 인터체인지, 로터리 등
행사 광장	군중집회, 축제, 퍼레이드를 위한 대규모 광장 행사가 없는 동안은 단순한 오픈스페이스 여의도 광장, 북경의 천안문 광장 등
만남의 광장	역, 공원 등 접근용이 지역에 약속장소로 이용 간단한 벤치, 분수·조각 등 배치 소비 기능과 결합, 생활문화공간으로 변화
놀이 마당	한국적 표현, 다목적으로 이용되는 마을 공간 행사가 있을 때는 다양한 공동체 놀이가 진행

참고 : 김철수(2001).

이처럼 광장은 물리적·비물리적 조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왔고, 그에 따른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 왔다. 문자 그대로 광장은 사람이 모이기 위한 넓은 장이지만 도시의 역사에 있어서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의사교환을 목적으로 하는가, 집회나 논의를 목적으로 하는가, 더 나아가 국가의 정치를 결정하는가 등의 단계에 따라 광장의 위치가 설정되었다. 이러한 광장의 기능은 중세에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도시 광장을 특징지었다. 그러나 근대 이후 계획된 광장은 고대 이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공허한 문자 그대로의 공간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성종·고필중, 1999: 119).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있어서도 광장의 중요한 기능은 '시민의 의식'을 응집시키고 소통시키는 장을 제공한다는 데 있다. 광장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만남, 활동이 이루어지는 도시의 거실이자 마당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만 하며, 시민들의 만남과 행사 등 사회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공 공간의 기능을 갖추어야만 한다. 이로써, 도시 광장은 옥외활동의 중심이라는 공간적·상징적 의미를 확보할 수 있고, 도시 환경의 '장소성'과 '사회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현대 도시 광장의 기능 및 의미를 종합해보면 첫째, 도시 광장은 휴식과 만남, 담화를 즐기는 공간이다. 둘째, 광장은 행사가 있을 때 만들어지는 놀이터이자 축제의 공간이다. 셋째, 광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많은 사람의 모임을 가능하게 하는 공공 공간으로서 정치적인 공간 혹은 여론 형성의 장이다. 넷째, 광장은 힘과 권력 표현의 공간이다. 광장은 정치적인 권위를 나타내고, 중

교적으로 신에 대한 강력한 믿음의 표현을 나타내는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한편, 위에서 언급한 광장의 기능 및 의의가 공간 활용에 관한 부분이라면, 공간적 의미에 따른 의의 역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광장은 ‘중심 공간’으로서, 도시인들은 그 곳에서 도시의 중심성을 느끼고, 공동의 감정을 확인할 수 있다. 광장은 도시인들의 외부 활동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그 안에서 도시인들은 각자의 자아를 드러내 보일 수도 있다. 둘째, 광장은 ‘비워진 공간’으로서, 사람과 행위의 채움을 유발한다. 이러한 광장은 개방성과 평등성, 자유성을 강조한다. 그것은 비워져 있고, 자유롭게 대형행사나 집회, 이벤트 등이 벌어질 수 있는 다목적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의견과 정보, 안부 등을 교환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장이면서 그 자체로서 삶의 공간인 것이다. 셋째, 광장은 ‘상징적 공간’으로, 도시의 역사적·사회적·문화적 상징성을 지닌다. 국가의 중대한 사건이나 인물을 기념하기 위한 공간이기도 하며 종교적·정치적 활동의 장이기도 한 광장은 암묵적으로는 도시인들의 문화와 규범을 형성하는 곳이다(이정은, 2003: 9~13).

Ⅲ. 서울광장의 건설 및 운영현황

1. 서울광장의 조성배경 및 건설과정

본래 시청 앞 광장은 국가의 상징 가로 계획의 하나로 서울의 중심적이며, 상징적인 장소로 다루어져 왔다. 그곳은 역사적이며 사회문

화적인 사건과 행위가 이루어졌던 중요 공간이었던 동시에, 지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중심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시청 앞 광장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시민들의 모임과 행위가 이루어졌던 공공의 커뮤니케이션 장이며,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공공의 광장이었다. 시청 앞 광장은 과거 군사적 목적에서부터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자신의 의견을 펼치는 공간이었다. 즉 시청 앞 광장은 인위적으로 조성되어 공적인 행동을 이끌어낸 곳이라기보다는 시민의 자발적인 활동에 의해 조성되었던 광장이었다(이정은, 2003: 26).

둘째, 시청 앞 광장은 지리적·공간적으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중심공간이다. 시청 앞 광장은 북측의 북악산, 남측으로 남산, 동측으로는 용마산, 서측으로는 안산에 둘러싸여져 위요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시청 앞 광장은 행정적으로도 상업적으로도 서울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서울 시청이라는 주요 공공시설과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종로나 명동 등과 같은 주요 상업지역과 인접해 있다. 따라서 유동인구의 유입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다.

셋째, 시청 일대는 주변에 역사·문화자원들이 산재한 문화적·역사적 장소이다. 세종문화회관이 있는 세종로를 기점으로 정동극장, 세실극장, 서울시립미술관, 일민미술관, 로댕 갤러리 등의 전시·문화시설이 풍부하다. 덕수궁, 원구단 등과 같은 문화재 역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한국 전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덕수궁의 문화 이벤트 및 전시 활동은 사람들을 유입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고급 숙박시설이 입지하여 관광문화지역으로서의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표 4〉 시청 앞 광장 일대 분석의 종합 및 잠재력

구분	항목	분석종합 및 잠재력
사회성	광장형성·기능	1896년 도시개조사업으로 현재의 가로 구조 갖추 3.1운동, 8.15해방, 민주화운동 등 국가적 사건의 중심 다양한 시민들의 시위 및 의견표출의 장 올림픽, 월드컵 통해 시민축제의 마당으로 자리 잡음
	입지여건	도심부 중앙에 위치 행정적·산업적 중심공간으로 유동인구 많음 행사 개최 시 큰 파급효과, 서울축제의 장소로 적합
장소성	주변환경	무교동, 저동, 북창동 등 보행밀집지역과 연계 다양한 행위의 수용이 가능, 도시마케팅에 유리
	역사·문화시설	원구단, 덕수궁 등 유서 깊은 역사적 장소들 입지 세종문화회관, 정동극장, 서울시립미술관 등 전시·문화시설이 인접
역사성	숙박시설	프라자호텔, 프레지던트 호텔 등 숙박시설 산재

이처럼 시청 앞 광장은 서울의 과거와 현재의 유의미한 역사적 사건 및 문화자원의 흔적을 보유하고 있는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공간이며,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행위를 일으켜오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의 만남을 가져왔던 사회적 공간이기도 하다. 즉, 시청 앞 광장은 국가적 상징성 및 역사성, 장소성과 사회성을 지닌 공간으로 서울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때문

에 서울시 시청 앞 거리조성 및 광장조성에 관한 안은 1983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1996년 이후부터는 보행자 위주의 도시를 요구하는 시민 단체 등으로 인하여 보행광장으로서의 성격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그 동안 교통통제를 비롯한 여타의 행정 및 재정상의 문제로 광장조성에 관한 안은 실현되지 못했고, 인간 중심이 아닌 자동차 중심의 교통광장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그러던 중 2002년 서울시 시청 앞 광장 조성에 관한 안이 서울시의 주요 시책으로 설정되면서, 광장 조성이 직접적으로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서울광장은 “사람 중심의 편리한 서울”이라는 서울시정의 도시정책 하에 추진되었다. 서울시는 『비전 서울 2006-서울시정 4개년 계획』에서 “서민을 위한 따뜻한 서울, 사람 중심의 편리한 서울, 경제 활성화로 활기찬 서울”을 만들기 위해 2006년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할 20대 과제를 선정했다. 그 중 “사람 중심의 편리한 서울”을 위하여 2005년까지 도심에 3개의 시민광장을 조성 계획하였는데, 이후에 연이어 조성될 광화문·승례문 광장과 함께 서울광장이 이에 포함되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002년 말부터 시민 및 전문가의 참여를 얻기 위해 광장조성위원회를 조직하였고, 곧바로 광장안을 공모하였으며, 그 결과 2003년 1월 ‘빛의 광장’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빛의 광장’안이 기술적·재정적으로 실현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기각되었고, 대신 2004년 2월 ‘잔디 광장’ 조성안이 본격적으로 제안·추진되었다. 그리고 2004년 5월 서울광장이 개장되었다.

이러한 서울시의 서울광장 조성안은 『시민광장 조성 기본계획』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서울광장 조성 배경 및 목적은 크게 3가지로 대표될 수 있다. 차량중심에서 보행자중심 도시로의 전환, 서울의 대표적인 도시이미지 구현, 도시의 활력과 도시 삶의 매력 증진이 바로 그것이다(서울특별시, 2003: 1). 또한 서울시는 서울광장의 기본구상안으로서 3가지의 계획안을 전제 한 바 있는데 고립성 극복, 주변 문화자원의 연계, 가변적 공간구성이 바로 그것이다(서울특별시, 2003: 99).

〈표 5〉 서울광장 추진 배경 및 목적

목 표	세 부 목 표
보행자 중심도시로 전환	도시문화벨트 형성 보행중심·인간중심 도시 → 장소성 강화 공간 추진
서울의 도시이미지 구현	역사적 상징성을 문화인프라로 구축 랜드 마크로써 도심광장 조성 → 역사성 강화
도시 활력 증진, 삶의 매력 증진	도로로 고립·단절되었던 문화자원 연계 시민중심의 보행광장·문화광장 조성 다양한 문화행사 및 교류·휴식의 공간 → 사회성 강화

참고 : 서울특별시(2003).

2. 서울광장의 일반적 운영현황 및 문제점

서울시는 앞서 언급한 기본적인 광장 구성안에 따라, 서울광장을 중심공간이자 상징공간으로 그리고 비워진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시도하였다. 서울광장 조성에는 도시계획·조형,

역사·문화, 교통과 관련된 학계 및 전문가, 시민단체 소속원 등 3개 분야 16명의 위원이 기본계획부터 참여했으며, 총 5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고, 그 결과 총 3천 800평 규모의 잔디광장이 조성되었다. 광장의 전체 형상은 타원형으로 조성되었는데, 이는 화합을 상징하는 대청마루에 평화를 상징하는 둥근 보름달이 걸려있는 모습으로 하나 된 우리들의 모습을 형성화한 것이라고 한다. 또한 광장은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을 최소화해 ‘비어있는’ 공간, 즉 도시의 여백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걷고 휴식하거나 이벤트가 벌어지는 열린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성되었다. 이에 조명이나 분수대 등과 같은 시설물의 규모 역시 최소화하였고, 타원형 잔디광장 둘레에는 48개의 바닥 조명등이 설치, 광장 남서쪽 덕수궁 정문 앞에 121개의 물길에 치솟는 오색바다 분수가 들어섰다.

그러나 이러한 내부 시설 및 조형보다 광장 구성에 있어 더욱 중요한 것은 외부 주변 환경이다. 특히 기존에 도로에 의해 차단되어 발생했던 광장의 고립성 극복은 광장의 실질적인 활용에 있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였다. 따라서 시청 정문 앞을 보행구간과 직접 연결하고 나머지 3곳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광장으로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인간 중심의 보행구간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보행벨트는 정동극장과 서울역사박물관 등 문화시설과 경복궁, 덕수궁 등 문화재를 연결하는 문화벨트 형상으로 이어져 서울광장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물론 서울광장은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위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서울광장을 사용하려면 7~60일 전에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정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광장이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되어야 한다는 서울시의 광장조성목적에 위배될 경우, 광장사용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다.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이거나, 문화·예술 진흥 등 기타 공익목적 위해 서울광장이 이용될 경우에는 사용료가 면제된다.

이상과 같이 조성된 서울광장은 서울시의 상징적 공간이자, 시민들의 자유로운 문화공간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울시의 집계 따르면, 서울광장이 개장한 2004년 ‘하이 서울 페스티벌’ 기간에만 약 40만 명의 시민들이 광장을 찾았으며, 개장 10일 만에 약 100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광장을 이용했다. 또한 서울광장이 개장한 100일째였던 8월 10일을 기점으로 광장 이용객이 439만 7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하루 평균 4만 7천 명이 서울광장을 이용한 셈이며, 특히 여름철 많은 시민들이 서울광장의 분수대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 겨울철에도 역시 서울광장은 많은 이용객으로 붐볐는데, 지난해 12월 24일에 개장한 스케이트장 이용객이 개장 45일째 11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서울광장 스케이트 이용객은 평일 평균 2천 118명, 주말 3천 170명이고 지역별로는 서울시민이 71.6%, 경기도민이 21%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창영, 2005. 2. 11).

이처럼 서울광장이 많은 관심을 받는 데에는, 서울 도심 한가운데 조성된 이례적인 잔디광장이라는 점과 광장에서 개최된 다양한 문화·예술행사가 유입요인으로 작동했기 때문이다. 서울광장은 제2회 ‘하이 서울 페스티벌’ 행사를 기점으로 광장 음악회, 빛의 축제, 퍼레이드, 왕궁수문장교대행렬, 이동미술관, 가족영화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연중 상설 운영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시민집회 및 캠페인 역시 열리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많은 이견들이 존재한다. 서울광장에서는 5월 개장 이래 12월 스케이트장 개장 전까지 5월에서 12월 사이 약 8개월 동안, 전시회 11회, 문화·예술 공연 및 축제 87회, 각종 기념행사 23회, 집회 및 캠페인 18회, 그리고 기타 행사 10회를 포함하여 총 149회의 크고 작은 행사 및 프로그램이 열렸다.

무엇보다 5월에서 11월 사이, 서울광장에서 전개된 다양한 행사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문화·예술 공연 및 축제이다. 2004년 5월 하이 서울 페스티벌을 기점으로 6월 20회, 7월~8월 14회, 9월 20회, 10월 18회, 11월 14회로 총 87회의 문화·예술 공연 및 축제가 개최되었다. 특히 서울문화재단이 서울광장에서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기획·실시하고 있으며, 점심시간을 이용한 공연을 비롯하여 매달 풍부한 문화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체 행사에서 락공연, 대중음악공연, 재즈공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약 10회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행사가 서울시 및 서울문화재단이 주최가 되어 이루어졌다. 공연단의 성격은 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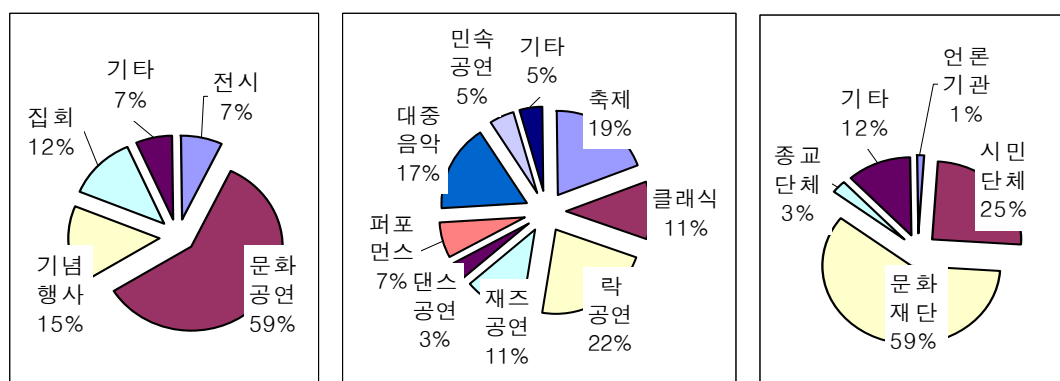
분 문화·예술 전문 집단이었고, 단 6회 정도만 서울문화재단이 시민공모를 통해 선정한 순수 시민참가집단이었다.

그 밖에 서울광장에서는 총 11회의 전시회와 23회의 각종 기념행사 및 대회, 그리고 5회의 캠페인과 13회의 집회가 열렸다. 전시회는 서울시를 비롯하여 복지단체, 민간사회단체, 그리고 문화예술 기획사 및 개인 예술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개최했으며, 전시회의 주제 역시 비교적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각종 기념행사 및 대회 역시 그러했다. 서울시 주최 행사가 9회, 시민단체 행사가 7회, 종교단체 행사가 4회 있었다. 행사의 성격은 기념일 행사, 추모식, 발대식 및 해단식 등에 이른다. 마지막으로 캠페인 및 집회는 대부분 시민사회단체가 주최가 되어 진행되었다. 그 밖에도 서울광장에서는 TV 촬영, 백일장 및 사생대회 등이 개최되었으며, 지난 해 12월 이후부터는 스케이트장을 개장해 운영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여러 다양한 행사를 내용별로 그리고 주최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행사 유형별 및 주최별 편중현상이다. 광장 운영 프로그램 유형 중 문화공연이, 그리고 행사 주최로서는 서울문화재단이 전체 행사 비중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서울광장이 단순히 문화·예술 공연장으로서 자리매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광장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행위를 유발하고,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단순한 관람 행위를 넘어서 직접적인 문화·예술 행위의 참여 기회가 보장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 및 서울문화재단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는 광장 프로그램은 시민들의 직접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행위를 유발하기보다는, 문화·예술 공연의 소극적인 관람자로 머물게 하고 있다. 이는 '시민광장' 혹은 '문화광장'으로서의 서울광장의 의미를 퇴색케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서울광장의 운영 부분에서도 발견된다. 서울광장의 운영상 문제점은 많은 시민단체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이 '서울광장



〈그림 1〉 내용별, 주최별 서울광장 프로그램 개최 현황

조례'에 관한 것이다. 현재 '서울광장 조례'에 따르면 다수 시민의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광장 사용에 대해서는 60일전부터 7일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야 하며, 광장 조성목적에 위배되는 경우에 사용을 허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광장 사용자는 1㎡당 1시간에 10원의 사용료를 시에 지급하고, 잔디 및 시설물이 손상됐을 경우 원상회복이나 배상 청구 할 수 있도록 해 집회나 시위 공간으로 광장이 이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표현인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측의 입장과 서울시의 광장이용방침이 지속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서울광장을 '공용재단'으로 바꾸고자 했던 서울시의 시도 또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이는 시민의 자유로운 참여와 행위를 제한하는 시도로서, '광장'이 지니는 본연의 의미를 상실케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시청 앞 광장은 역사적으로도, 상징적으로도 시민 모두의 자발적인 의사표현의 장이었다. 때문에 다양한 시민들의 커뮤니케이션 행위라 할 수 있는 '집회'를 막기 위해 서울광장을 '공용재산'로 바꿀겠다는 서울시의 의지는 재고되어야만 한다.

그 밖에 서울광장이 개장한 이래 여타의 문제점 역시 지적되고 있다. 우선, 많은 이용객이 서울광장에 집중되면서 각종 편의시설의 부족, 광장의 위생관리 및 안전부분에 관한 문제가 지적되었다. 더불어 잔디광장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문제도 서울광장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잔디 훼손을 우려한 출입통제, 매주 월요일마다 실행되는 잔디휴일, 겨울철 잔디광장 출입통제 등이 광장 이용 시 불편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광장 유지·보수비의 문제도 지적사항 중 하나이다.

IV. 서울광장에 대한 만족도 및 이미지

본 장에서는 2005년 1월 17일에서 23일까지 약 1주일간 서울광장에서 104명의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조사대상자는 104명으로 그 중 불성실한 응답이나 응답이 누락된 2명의 응답자를 제외하고, 분석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10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들 중 44.1%가 남성, 55.9%가 여성이었고, 또한 조사대상자들 중 10대가 28.4%, 20대가 44.1%, 30대가 21.6%, 40대 이상이 5.9%였다.

1. 서울광장 이용현황

서울광장 이용실태에 관한 조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시민광장을 이용하는 빈도는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가 4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41%의 응답자가 가끔 이용한다고 응답했으며, 자주 이용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8%에 지나지 않아 서울광장 이용률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이는 서울광장 이용행태가 일상적이고 반복적이라기보다는 일회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한 서울광장 이용률과는 차이를 보이는데,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름·가을 시즌에 서울광장을 찾는 이용객들과 겨울철 서울광장을 찾는 이용객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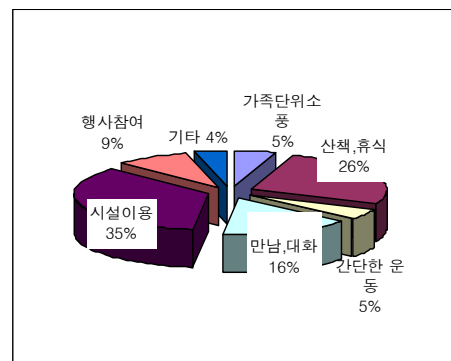
며, 따라서 일상적인 휴식 및 문화공간으로서 서울광장이 계절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광장 이용 계절에 관한 조사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로 이용하는 계절에 관한 질문에서 51%가 겨울철에 광장을 이용한다고 응답했고, 22%가 6월~8월, 17%가 9월~11월 서울광장을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서울광장 이용 요일 및 시간대를 살펴보면 주말 이용이 6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주중이 29%, 공휴일이 5%로 나타나 평일 이용객보다는 주말 이용객이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시간대는 오후 2시~6시 이용이 62%로 1순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저녁 6시~8시가 18%, 점심시간대인 12시~2시가 15%, 오전 9시~12시가 3%, 그리고 야간 8시~12시가 2%로 나타났다. 퇴근 혹은 하교 이후에 서울광장을 보다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점심시간을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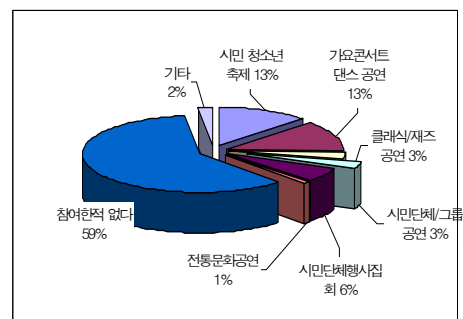
광장 이용 시 머무는 시간을 묻는 질문에서는 약 1시간 정도를 응답한 사람이 44.1%로 가장 많았으며, 2~3시간이 38.2%, 30분이 13.7%로 나타나 3시간 이하로 광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2~3시간 이용객이 38.2%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서울광장이 단순히 목적지를 향하는 과정에서 잠깐 들르는 통로라기보다는 특정한 목적을 지닌 채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서울광장 이용 목적에 관한 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시설 이용이라고 응답했다. 스के이트장 이용객이 겨울철

서울광장 방문객의 주를 이루면서 보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어 산책이나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26%, 만남이나 대화를 위한 장소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16%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용목적에 관한 응답에서 드러나는 연령별 차이이다. 10대의 경우 과반수를 넘는 55.2%가 시설이용이라고 응답한 반면, 20대는 산책이나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33.3%를 차지했다. 또한 연령이 높아질수록 광장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 및 공연에 참여하기 위해서 서울광장을 찾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많았다. 특히 40대의 경우, 다른 목적보다 행사 참여의 목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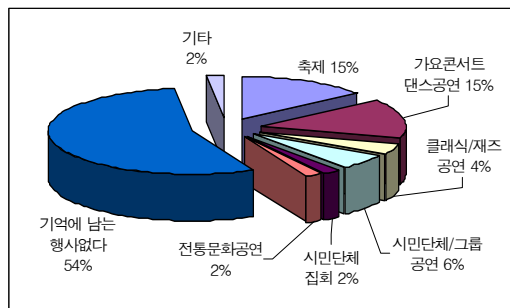


〈그림 2〉 서울광장 이용목적(%)



〈그림 3〉 서울광장 행사 참여 현황(%)

그렇다면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각종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은 어떠한지 살펴해보도록 하자.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행사 및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경험을 묻는 질문에, 59%의 응답자가 참여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참여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대중가요콘서트 및 댄스 공연과 시민·청소년 축제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각각 13%에 해당해 대중문화공연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 10대의 경우, 다른 행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축제 참여 경험이 가장 많았고, 20대의 경우에는 축제와 시민단체 집회에, 30대는 대중가요콘서트에, 40대는 축제에 참여한 경험이 높았다.



〈그림 4〉 가장 인상 깊은 행사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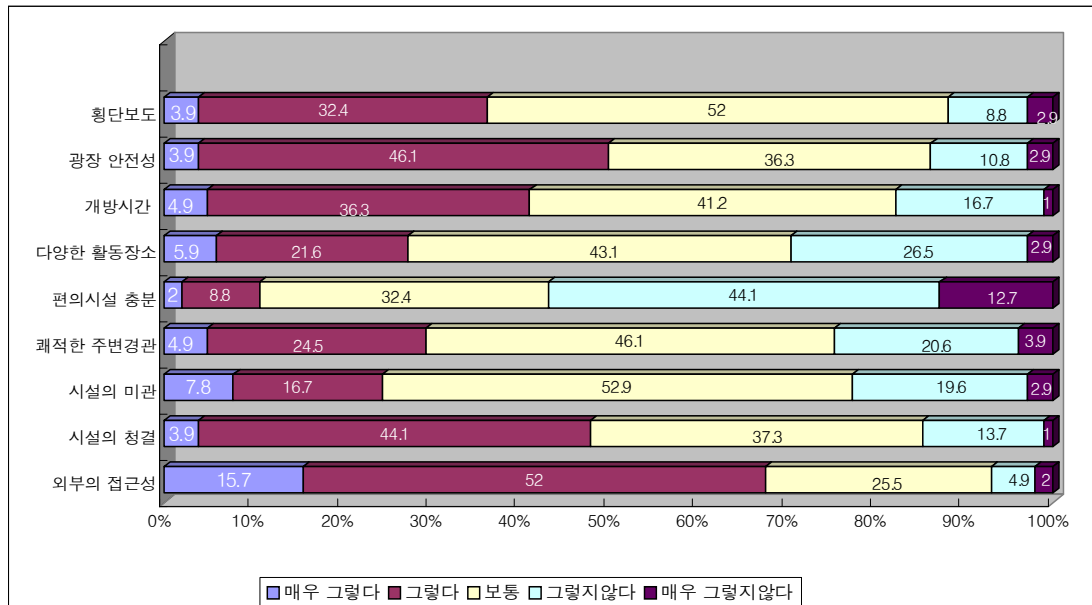
또한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각종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를 묻는 질문에서도 역시 앞선 응답과 유사하게 응답자의 30%가 시민·청소년 축제와 대중가요 콘서트를 꼽았으며, 그 밖에 시민단체 및 시민그룹의 공연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응답한 사람들도 6% 있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

들이 기억에 남는 행사가 없다고 응답해, 서울광장에서 개최되었던 행사 및 문화프로그램의 참여도 및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서울광장은 계절별 이용현황 및 이용행태가 차이를 보이는 만큼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본 설문 대상이었던 서울광장 겨울철 이용객들은 스케이트장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며, 주말에 주로 2시~6시 사이 오후 시간대에 1시간 혹은 2~3시간 정도 서울광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산책이나 휴식 혹은 만남과 대화를 위해 서울광장을 찾는다고 응답한 사람들도 상당부분 존재했는데, 10대의 대부분이 스케이트장을 비롯한 서울광장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서울광장을 찾는다고 답한 반면 20,30대는 산책·휴식 혹은 만남·대화를 위해 서울광장을 이용한다고 답했다. 그 동안 서울광장에서 꾸준히 진행되어왔던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의 규모와 양을 고려해 볼 때, 서울광장에서 개최되었던 축제나 대중콘서트를 제외하고는 서울광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행사 및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서울광장에 대한 만족도 및 이미지

서울광장의 이용만족도에 관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하나는 시설 및 환경에 대한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서울광장에서 진행되었던 다양한 행사 및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다.



〈그림 5〉 광장 시설 및 환경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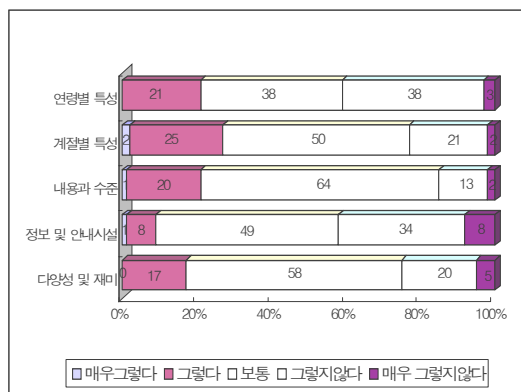
우선, 시설 및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174의 평균 만족도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외부의 접근성(3.745) > 광장의 안전성(3.372) > 시설의 청결(3.362) > 개방시간(3.274) > 횡단보도(3.254) > 시설의 미관(3.068) > 주변경관(3.058) > 다양한 활동공간(3.009) > 편의시설(2.431)의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광장 이용객들의 응답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각 항목에 대한 불만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앞서 언급한 편의시설 부분에서는, 광장 편의시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이용객은 10.8%에 그친 반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용객은 56.8%에 달하였다. 또한 광장이 다양한 활동을 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응답한 이용객들도 29.4%나 존재했다. 광장의 개방시간이나 청결에 관한 부분에서도,

개방시간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17.7%, 광장시설이 청결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14.7%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서울광장에서 진행되었던 각종 행사 및 문화프로그램에 관한 만족도는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135의 평균 만족도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계절별 프로그램(3.794) > 내용과 수준의 적절성(3.049) > 연령별 프로그램(3.029) > 다양성 및 재미(2.882) > 정보 및 안내시설(2.598)과 관련한 항목 순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대부분의 이용객들이 평균 수준의 만족도를 보일 뿐 그다지 높은 수준의 만족도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41%, 정보 및 안내시설 부

족을 지적한 응답자가 42%로 상당부분 불만족을 드러내고 있다. 그 이외에도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흥미 부분에서 25%의 응답자가, 계절별 프로그램의 적절성에 관한 부분에서는 23%의 응답자가, 내용과 수준의 적절성에서도 15%의 응답자가 불만족을 드러냈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시설 및 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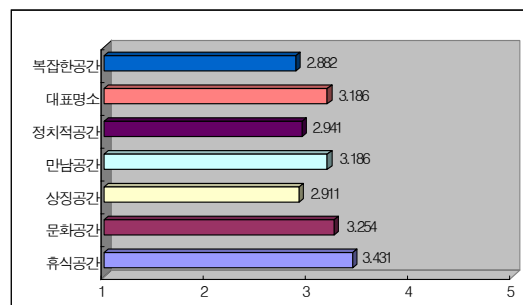


〈그림 6〉 광장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한편, 서울광장에 대한 이미지 부분은 서울광장의 애초 조성목적 및 배경과 관련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앞서 이미 언급했듯이 서울광장은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 하에, 그리고 역사적·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조성·계획되었다. 서울광장은 도심 속 휴식공간이자, 축제 및 문화예술의 공간이며, 서울의 상징공간이고, 또한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더불어 정치적·사회적 이슈를 알리고 접하는 공론의 장으로서, 서울시를 대표하는 명소로서의 이미지 역시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서울광장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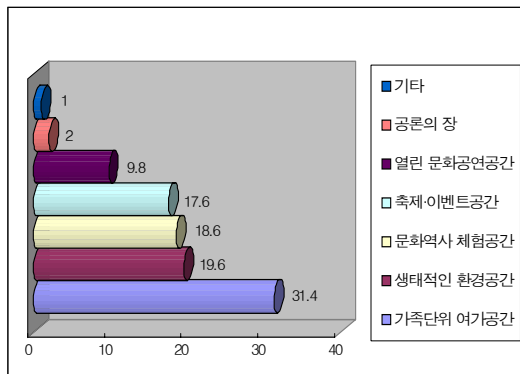
염두 해야 한다. 따라서 서울광장에 대한 이용객들의 이미지 역시 이와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다.

우선, 5점 척도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사색과 산책을 즐기는 공간으로서 서울광장을 인식하는 정도가 3.431로 가장 높았다. 또한 축제 및 문화·예술 공간(3.254)이자, 친구나 이웃과의 교류를 위한 만남의 공간(3.186)이며, 서울시의 대표적인 명소(3.186)로써 서울광장을 인식하는 정도도 높았다. 반면 서울광장이 서울시의 역사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상징공간이라는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며, 다양한 정치적·사회적 이슈를 알리는 공론의 장이라는 인식 또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앞서 논의한 광장 내 프로그램 진행 현황과 연관하여 살펴보면, 서울광장이 문화·예술의 공간으로서 보다 많이 쓰이고 있는 반면,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와 활동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보장하는 공간으로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서울시가 서울광장을 어떻게 프로그램화하고 있는지, 공간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그림 7〉 서울광장에 대한 인식 및 이미지(5점척도)

마지막으로 서울광장에 대한 바람과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보면, 광장시설이 보다 세분화되고 보완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이용객이 37.3%로 가장 많았고, 문화전시회 및 공연이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27.5%로 다음 순위를 차지했다. 광장시설에 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온 사항으로 광장 내 화장실, 식수대, 벤치, 차양막 등의 편의시설 설치가 요구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문화전시회 및 공연의 다양화를 개선점으로 꼽았다는 것인데, 그간 진행되어온 광장 내 문화행사 혹은 프로그램의 규모 및 횟수를 생각해 본다면 더욱 그러하다. 이는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문화행사가 시민 혹은 이용객들의 욕구와 바람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음을 입증한다. 전반적으로 서울광장의 편의시설을 비롯한 각종 시설보안에 관한 욕구와 문화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참여기회 확대에 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보인다.



〈그림 8〉 향후 서울광장의 발전 방향

이러한 바람과 욕구는 향후 서울광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이용객들의 제안에서

도 드러나는데, 가장 많은 시민들이 서울광장이 가족단위 여가활동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생태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도심 속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이용객이 19.6%, 서울의 문화와 역사를 접할 수 있는 문화·역사 체험 공간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18.6%, 다양한 문화이벤트나 축제, 야외 전시회 및 공연을 접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17.6%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청소년 등의 일반시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열린 문화공연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9.8%,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교류와 캠페인이 진행되는 공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2% 존재한다.

이 중에서 특히 서울광장이 향후 문화역사 체험공간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답한 이용객들이 18.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서울광장에 대한 기존 인식 혹은 이미지와 비교해 보았을 때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 즉 기존 인식 혹은 이미지에서는 서울광장이 서울시의 문화와 역사를 상징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낮았던 반면에, 향후 서울광장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그러한 상징적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시민들은 답하고 있다. 따라서 상징공간으로서 서울광장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V. 결론 및 제언

도시 광장은 시민들의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보장하는 공공 공간인 동시에, 한 도시의

이정표 역할을 수행하는 상징공간이다. 따라서 도시 광장은 도시 시민들의 다양한 도시 경험, 즉 장소성과 역사성 그리고 사회성을 보장하고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동시에 한 도시의 정체성과 공공 이미지를 확립하는 데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한다. 서울광장 역시 그러하다.

그러나 서울광장 조성 그 자체로만 충분한 것은 아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서울광장 조성 이후 그 광장을 채우게 될 실질적인 시민들의 참여와 활동이다. 광장이 아무리 잘 조성되었다고 할지라도 시민들의 욕구와 바람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광장을 찾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광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프로그램 을 마련하는 일이다. 그리고 동시에 그 프로그램이 서울시의 문화적 상징성과 장소성을 반영하여 서울광장이 공공환경으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이러한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난 해 5월 개장 이래 서울광장 운영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시민들의 욕구를 파악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광장 운영 및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시민들의 이용현황 및 만족도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요약·정리해보면 <표 6>과 같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은 서울광장이 시민들의 일상적인 휴식 공간이나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광장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상의 문제점이 해결되고 보완되어야 한다. 특히 서울광장 이용행태가 일상적이고 반복적이라기보다

는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일상적인 생활공간으로 혹은 일상적인 문화공간으로의 재배치가 요구된다. 여기서는 크게 시설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이미지의 네 측면에서 몇 가지 개선안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표 6> 서울광장 시설 및 프로그램의 문제점

항 목	내 용
시설 및 관리	화장실, 쓰레기통, 벤치, 식수대, 차양막 등 편의시설 부족 분수대 위생문제, 대기 오염문제, 주변도로 차량에 의한 안전사고 대비 미비 잔디휴일제 및 잔디 유지·보수비용 문제
프로 그램	문화전사회 및 프로그램·행사의 다양화 부족 역사적·전통적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 부족 (주변 역사자원과 연계 부족) 직접적인 시민참여 프로그램 부족(행사 주최의 편중) 프로그램 정보 및 안내시설 부족
운영	광장 이용 제한 문제, 집회 및 대형행사 제한 문제, 이용료 지불 문제 광장의 '공용재산' 전환 문제
이미지	시민들의 공공 공간으로서 '시민광장'에 대한 인식 부재 광장의 상징성과 역사성에 대한 인식 부재

우선, 시설 및 관리의 측면에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편의시설 부분이다. 산책과 휴식 혹은 만남과 대화를 위해 서울광장을 찾는 많은 이용객들이 편의시설 부족을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화장실, 쓰레기통, 벤치, 식수대, 차양막 등의 편의시설 설치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광장 관리에 관한 문제 중 분수대 위생이나 안전사고 대비에 관한 부분은 그 문제점이 지적된 후 이미 개선된 바 있다. 그러나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던 재식은 관

리의 어려움이나 노숙자 증가 등의 문제로 거부된 바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서울광장 이용객들은 서울광장 주변 도로의 많은 차량으로 인해 안전의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쾌적하지 못한 주변 환경이 서울광장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광장 주변에 나무를 심어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주변경관을 보다 생태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더불어 다양한 식재를 선택함으로써 광장 공간의 분할과 세분화를 동시에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광장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재배치하고, 각 프로그램의 유형별 특성과 대상층을 명확히 하는 일이다. 이미 앞서 살펴보았듯이 서울광장에서 진행되었던 총 150회의 각종 행사 중 문화행사는 87건에 달했으며, 그 중에서 락 콘서트 및 대중음악 콘서트가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주최별로는 서울문화재단이 6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행사내용별, 주최별로 보았을

때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못하고, 보다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보장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시민공모를 통해 공연에 참여한 시민 공연팀은 단 6회에 그치고 있다. 이는 서울광장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행위를 유도하고 촉구하기 보다는, 단순히 ‘공원’과 같은 역할 수행에 그치고 있음을 입증한다.

따라서 광장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걸맞게 보다 세분화하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주별 혹은 월별에 따라 문화행사 및 대상층을 특성화하거나 테마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령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의 기획을 제안해볼 수 있다. 예컨대, 청소년 문화축제 및 공연을 보다 일상화하거나 청소년 문화주간을 선포하여 서울광장 내 청소년 문화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대중문화 공연에만 치우치지 않고, 전통문화예술 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전시회를 기획·개최해야 한다. 전통문화예술 공연은 서울광장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획되어야 하며, 전시회는 서울광장이 일상적인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

〈표 7〉 광장 행사 및 프로그램 개선안

항 목	내 용	효 과
청소년문화공연	청소년 문화공연의 정례화/ 월1회 청소년동아리 공연기회 보장 청소년 문화행사 및 축제 기간 선포 방학을 이용한 청소년 축제 개최	청소년의 문화 활동 보장 다양한 연령층 유입 광장 프로그램 세분화
전통문화공연	전통 문화예술 공연 확대 덕수궁과의 연계 고려/ 왕궁수문장 행사 서울광장과 연계	서울광장의 역사성 강화 서울광장의 상징성 강화
전시회 확대	일상적인 문화예술 전시회 확대 개인 및 시민단체 주최 전시회	일상적인 문화공간 구성 일상적인 볼거리 제공
시민공연 확대	시민공연팀 적극 발굴 및 육성 시민공연팀에게 공연기회 우선 제공	시민들의 직접 참여 열린 문화예술공간 조성
안내시설구축	광장 내 행사 정보 안내시설 구축	정보제공 통해 참여기회 확대

요한 것은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문화공연을 확대·개최해야 한다. 시민 공연팀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공연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서울광장이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문화광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서울광장 운영 및 구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광장을 참된 '시민광장'으로 자리매김 하는 일이다. 앞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광장'은 시민들의 시민의식과 자발적인 참여가 충분히 발현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달리 말하자면, 광장은 어느 누구의 개별적인 소유물이 아닌 시민 주체 모두의 공공 공간이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다양한 행위를 통해 구성되는 커뮤니케이션의 장이다. 광장은 '공원'과 다르다. 광장의 핵심적인 기능과 의의는, 광장의 오랜 역사가 보여주듯이 시민들의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는 정치적·문화적 장이라는 데 있다. 따라서 시민들과의 충분한 합의 없이 광장이 조성·운영·관리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시민광장으로 간주할 수 없다.

이에 서울광장이 '시민광장'으로 자리매김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촉구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서울광장의 조성목적 및 운영방침에 대한 시민들의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서울광장은 시민들의 광장이다. 따라서 그 운영방침에서도 역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서울광장 이용 자격 및 제한 근거는 명확한 규칙 하에 일관성을 지녀야 하고, 시민들의 합의된 기준 하에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간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

던 '광장조례안'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다양한 시민단체 및 시민들의 의견 수렴과정이 요구되며, 합의의 과정이 촉구된다. 다양한 활동을 '제한'하는 데 목적을 둔 광장 운영안이 아닌 집회나 각종 행사, 문화 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운영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더불어 지난해 말부터 논쟁이 되어왔던 서울광장을 '공공재산'에서 '공용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는 문제는 심각하게 재고되어야 한다. 누누이 강조하였듯이, 시민광장은 시민들의 공공 공간이다.

마지막으로 서울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인식변화를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서울광장을 '시민광장'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추진하기 위한 시도가 요구된다. 서울광장은 애초 조성 의도에 상정한 다양한 목적과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채, 단지 공원과 같은 '쉼터'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 그것은 서울시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경험하게 하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이나, 다양한 사람들과 사건들을 만날 수 있는 시민참여 및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의 서울광장 운영 방향 속에서 그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의도된 문화프로그램이나 스케이트장 운영과 같은 시설적 측면에 대한 노력만으로는 서울광장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충분히 실현시킬 수 없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다른 각도의 노력이다. 예컨대, 광장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시민참여 기획단 구성을 고민

해 볼 수 있다. 서울문화재단이 단독적인 주최가 되어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보다, 문화시민단체와 청소년문화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보다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를 담아낼 필요가 있다. 공연 및 프로그램의 기획 과정에서부터 실질적인 공연과 행사진행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서울광장을 열린 문화의 광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시도는 시민참여를 통한 자발적 행위로 ‘비어진 공간’인 서울광장을 풍성히 만들 수 있으며, 시민광장이자 문화광장으로서의 서울광장을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도심 속 광장으로서 서울광장은 인간과 자연 혹은 인간과 인간이 서로 소통하며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의 장이 되어야 한다. 점점 더

공공 공간이 사라져 가는 도시환경의 딜레마 속에서, 서울광장이 지니는 사회·문화적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서울광장은 보다 다양한 사람들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공공 공간으로써,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되는 공간이자 자아 정체성이 실현되는 공간으로써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또한 도시 서울의 문화적 이미지를 대표하는 상징공간으로서, 역사적 공간으로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울광장의 시설 및 운영,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이용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이상에서 제시한 각각의 개선 방안을 재정적, 인적 자원을 고려하여 단기적·장기적 실행계획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8〉 서울광장 운영 및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

항 목	내 용	효 과
사전조사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서울광장에 대한 만족도, 인식조사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광장에 대한 욕구조사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서울이미지 조사 다른 지역 및 해외 광장 운영 및 실태조사	광장에 대한 시민의 욕구와 시민의식 파악 광장이 서울이미지에 미친 영향 파악
네트워크 조사	문화단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기존 네트워크 파악 청소년 동아리 및 청소년 단체의 네트워크 파악 기획단과 운영자문단을 위한 가능한 모델 구축	기획단, 운영자문단 구성을 위한 사전 작업
기획단/ 운영자문단 구성	청소년, 시민, 문화단체와 집단 중심으로 네트워크 구성 문화프로그램 기획과 진행을 위한 ‘기획단’ 구성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운영자문단 구성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 유도 서울광장 이미지 개선

〈표 9〉 서울광장 운영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장단기 실행과제

시 기	항 목	과제 내용
단기과제 (~2006년까지 실행)	시 설	화장실, 쓰레기통, 벤치, 식수대, 차양막 등 편의시설 구축 광장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식작업
	프로그램	월1회 청소년동아리 공연기획 보장 방학을 이용한 청소년 문화행사 및 축제 기간 선포 덕수궁과 연계하여 전통문화공연 정례화 광장 내 행사 정보 및 안내시설 구축
	운 영	서울광장조례안, 광장의 공용재산화에 대한 공청회 개최 광장 운영에 관한 전문가 자문회의 구성
	인식개선	서울광장에 대한 만족도, 인식조사, 욕구조사 다른 지역 및 해외 광장 운영실태 조사
중기과제 (~2007년까지 실행)	프로그램	일상적인 문화예술 전시회 확대 시민공연팀, 시민단체 및 문화단체의 공연 확대 광장 인근의 전통문화시설·공간과 연계, 전통문화행사 정례화
	인식개선	문화단체, 청소년단체, 시민단체의 다양한 네트워크 파악 서울광장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단 모델 확립 서울광장 운영을 위한 자문단 모델 확립 서울시와 기획단 및 운영자문단간 관계 모델 확립
장기과제 (~2008년까지 실행)	프로그램	광장 프로그램 기획단 구성을 통해 시민참여 공연의 정례화 일상적인 문화예술 전시회 및 공간 확보 및 정례화 광장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시민공연팀 발굴 및 육성
	인식개선	시민참여를 전제로 한 문화프로그램 기획단 구성 및 활동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광장 운영자문단 구성 및 활동

참고문헌

- 강홍빈, 2005. 2. 4, “[금요일칼럼] ‘그림의 떡’ 서울광장”, 동아일보.
- 고성중·고필중, 1999, 『도시환경과 개방공간 디자인』, 미진사.
- 권상은, 2005. 2. 28, “세종로네거리 東西 횡단보도 3월초 생긴다”, 조선일보.
- 김민호, 2004. 5. 11, “현장리포트/서울광장 개장 열흘 ‘명과 압’”, 국민일보.
- _____, 2004. 5. 8, “서울시, ‘잔디도 쉽다’ 시청앞 광장 출입제한”, 국민일보.
- 김선화, 1996, “통합예술공간으로서의 도심 오픈 스페이스의 계획과 디자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성광, 1985, “도시 내의 외부공간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 김송미·오병태(역), 1996, 『도시의 공간과 시간』, 대우출판사.
- 김순배, 2004. 5. 3, “시민에 열린 서울광장/시민사회엔 닫힌 광장”, 한겨레.
- 김영상, 2004. 11. 23, “[기자수첩]서울광장은 정치광장?”, 헤럴드경제.
- 김영아, 2001, “여의도 오픈스페이스 개선계획”,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김왕배, 2000, 『도시 공간 생활세계계급과 국가권력의 텍스트해석』, 한울.
- 김창영, 2005. 2. 11,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11만명 돌파, 이달 28일까지 연장 운영”, 경향신문.
- _____, 2005. 2. 18, “광화문~시청~남대문~서울역 6개 횡단보도, 서울 중심부 보행벨트 구축”, 경향신문.
- 김철규, 2004. 5. 11, “[열린 세상] 서울 잔디광장 유감”, 서울신문.

- 김철수, 2001, 『도시공간의 이해』, 지문당.
- 김화현, 2002, “사회적 단절의 극복을 위한 도시 Network Design: 종로를 중심으로”, 경기대 석사학위 논문.
- 남종영, 2004. 11. 2, “서울광장 ‘애물단지’ 전락-눈 오거나 추우면 잔디 못 밟아”, 한겨레.
- _____, 2004. 12. 24, “잔디만을 위한 서울광장/겨울철엔 사실상 ‘봉쇄’”, 한겨레.
- _____, 2005. 2. 26, “청계천·시청 등 서울도심 걷기/육교·지하도 필요 없는 거리로”, 한겨레.
- 남종영·유선희, 2004. 10. 4, “서울광장은 보수단체 ‘앞마당’”, 한겨레.
- _____, 2004. 11. 23, “서울시-경찰 ‘광장 집회허가’ 갈등”, 한겨레.
- 남주리, 2004. 11. 3, “영하날씨엔 서울광장 출입금지”, 조선일보.
- 도시연대, 2004, 『걷고 싶은 도시』, 5·6월호.
- 라도삼, 2004, 『서울시 문화시설 확충방안 연구-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중심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문성일, 2005. 2. 27, “서울광장 스के이트장 28일 폐장”, 머니투데이.
- 문주영, 2004. 9. 18, “서울광장 분수서 병원성 세균검출, 먹물 기준 최대8만배”, 경향신문.
- 문화연대, 2002, 『문화도시 서울, 어떻게 만들 것인가』, 시지락.
- 박명식, 2004. 5. 18, “독자의 편지/서울광장 안전울타리 설치해주길”, 동아일보.
- 박병욱, 1984, “시민보행광장조성 기본계획-서울시청앞 교통광장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 박상길, 2003, “도심 시민광장 계획안-서울 시청 앞 광장을 중심으로”, 건국대 석사학위 논문.
- 방승배, 2004. 5. 20, “‘서울광장’ 집회금지 첫날 시위예고”, 문화일보.
- 서울대학교 도시설계 포럼(역), 2003, 『도시경관과 도시설계』, 태림문화사.
- 서울문화재단, 2004a, 『서울의 도시문화이미지 활성화 방안 자료집 I』.
- _____, 2004b, 『서울의 도시문화이미지 활성화 방안 자료집 II』.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시청 앞 광장안 방안연구 위크샵주제 발표 자료집』.
- _____, 2004, 『서울의 미래를 읽는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서울특별시, 2003, 『시민광장 조성 기본계획 연구』, 서울특별시.
- 송한수, 2004. 6. 30, “서울광장 잔디 “나 좀 살려줘””, 서울신문.
- _____, 2004. 8. 17, “서울 in Seoul/개장 100일 넘긴 서울광장 ‘제자리’”, 서울신문.
- _____, 2004. 9. 23, “서울광장 대기오염 기준 초과”, 서울신문.
- 신형준, 2004. 6. 30, “서울광장 잔디보호 위해 7~9월 행사차제요청”, 조선일보.
- 양홍주, 2004. 10. 19, “유지보수비 월드컵공원의 14.5배... 너무 비싼 ‘서울광장’”, 한국일보.
- _____, 2004. 11. 30, “덕수궁 순라행렬 재현행사”, 한국일보.
- _____, 2004. 12. 27, “집회·시위 메카들이 사라진다”, 한국일보.
- 염지은, 2004. 5. 2, “[사회] 서울광장 시민 휴식공간으로”, 제일경제.
- 유선희, 2004. 10. 19, “서울시청 잔디광장 유지비/상암 월드컵공원의 14.5배”, 한겨레.
- _____, 2005. 2. 24, “서울광장 용도 변경안 또 보류”, 한겨레.
- 유신재, 2004. 6. 5, “‘잔디광장’은 ‘관변단체 광장’/6월말까지 집회신고 완료”, 한겨레.
- _____, 2004. 6. 8, “서울광장, 시민위한 광장인가 잔디위한 광장인가”, 한겨레.
- 이경희, 2004. 5. 3, “편의시설조차 없는 서울광장”, 세계일보.
- 이유중, 2004. 10. 26, “서울광장 상설무대 만든다/ 잦은 설치·철거로 돈 낭비”, 서울신문.
- 이정은, 2003, “서울문화 시민광장 조성계획 및 설계-서울 시청 및 시청 앞 광장을 대상지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이진한, 2004. 10. 27, “서울광장 잔디 “겨울엔 잠자요””, 동아일보.
- _____, 2004. 11. 3, “한낮의 여유...서울광장서 점심시간 각종 공연”, 동아일보.
- 이현욱·이부귀(역), 2001, 『문화와 권력으로 본 도시탐구』, 한울아카데미.
- 장강명, 2004. 5. 7, “하이 서울 페스티벌 / 8.9일 불거리 먹을거리 한아름”, 동아일보.
- 장태현, 1996, “도시 광장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홍익

- 대 박사학위 논문.
- 장혁준·윤진, 2004. 5. 8, “서울시 “잔디광장 출입·집회 제한”/시민단체 “시민 발 묶는 전시행정””, 한겨레.
- 전대열, 2001, “‘중재 개념’의 도입을 통한 분당 신도시 중심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 논문.
- 정근식·이종범 편, 2001, 『문화도시 만들기 이론과 구상』, 경인문화사.
- 조명래, 2004. 12. 20, “〈시론〉 서울광장은 시민 것이다”, 경향신문.
- _____, 2005. 2. 18, “시청광장은 시 부속이 아니다”, 한겨레.
- 조혜경·이영근, 1996, “도시광장의 특성 연구:물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충남대, 『지역개발논총』 제8집.
- 채지영, 2004. 5. 11, “메트로 인사이드 / 서울광장 개장 열흘”, 동아일보.
- 천기원, 2005. 2. 14, “독자의 목소리 / 서울광장은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 국민일보.
- 최효찬, 2004. 5. 4, “차량진입 무방비 지적 따라 ‘서울광장’ 차단시설 설치키로”, 경향신문.
- _____, 2004. 5. 7, “서울광장 잔디 상처투성이, 6일새 50만여명 다녀가...당분간 출입 통제”, 경향신문.
- _____, 2004. 6. 8, “서울광장에 잔디보호 깔판”, 경향신문.
- 한영호·정진우(역), 2003, 『도시환경디자인』, 광문각.
- 허 원, 1984, “도심지 시민광장 계획에 관한 연구-서울시 청 앞 광장을 중심으로”,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 황태훈, 2004. 7. 19, “서울광장 유지비 月2000만원...연말까지 1억5600만원 들 듯”, 동아일보.
- _____, 2004. 8. 28, “[기자의 눈] 시민 발길 막는 ‘잔디광장’”, 동아일보.
- 황홍섭·박길자, 2002, “생활세계 관점에서 본 PIFF 광장의 문화 공간적 의미 이해와 사회과 교육”, 『초등교육연구』 제17집.

원 고 접 수 일 : 2005년 7월 1일
1차심사완료일 : 2005년 8월 8일
최종원고채택일 : 2005년 8월 31일